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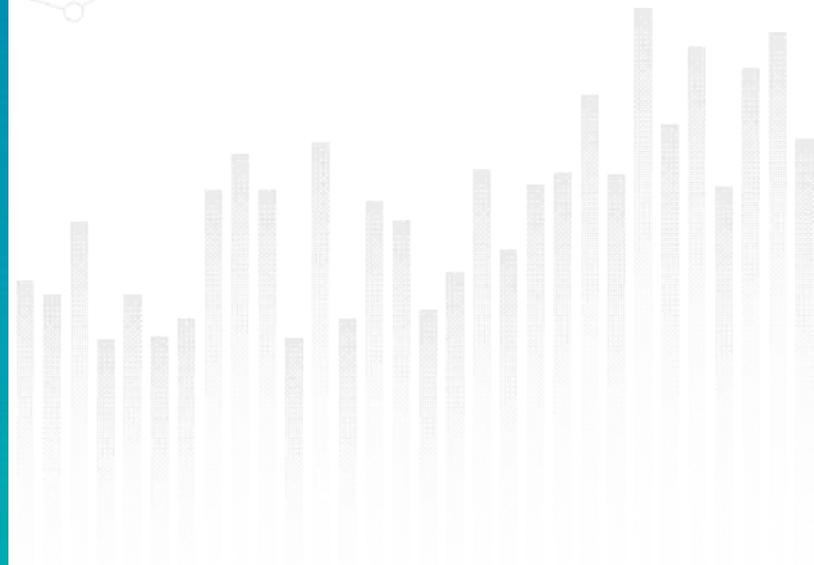
#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## 쿠웨이트

### State of Kuwait

2018년 12월 21일 | 조사역(G3) 이지은

- 국가개황
- 경제동향
- 경제구조 및 정책
- 정치·사회동향
- 국제신인도
- 종합의견



## 일반개황

<b>면적</b> 1.8만 km <sup>2</sup> 	<b>인구</b> 4.5백만 명 (2018 <sup>e</sup> ) 	<b>정치체제</b> 입헌군주제 	<b>대외정책</b> 친서방 실리외교 
<b>GDP</b> 1,445억 달러 (2018 <sup>e</sup> ) 	<b>1인당GDP</b> 31,915달러 (2018 <sup>e</sup> ) 	<b>통화단위</b> Kuwaiti Dinar 	<b>환율(U\$기준)</b> 0.30 (2018 <sup>e</sup> ) 

- 아라비아 반도 동북단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,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,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.
-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0년 이라크의 침공이 있었으나,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(UN)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.
- 인구 450만 명, 국토면적 1.8만 km<sup>2</sup>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(세계 7위) 및 천연가스(세계 19위)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. 다만,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.
- 쿠웨이트 정부는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'New Kuwait 2035'를 수립하여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·상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, 신도시 건설, 인적자원 개발 등 총 16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
- 2006년 즉위한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(Emir)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으나,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한 분파 간 갈등이 존재함.

## 우리나라와의 관계

**국교수립** 1979. 6. 11 수교 (북한과는 2001. 4. 4)

**주요협정** 항공운수협정('82년), 문화협정('83년), 무역증진협정('84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'00년), 경제기술 협력협정('06년), 투자증진협정('07년), 형사사법공조조약('08년), 범죄인인도조약('13년), 사증 면제협정('15년)

## 교역규모

(단위 : 천달러)

구분	2016	2017	2018.1-10	주요품목
수출	1,405,816	1,162,575	1,069,366	자동차,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, 선박해양구조물
수입	7,262,270	9,593,955	10,712,650	원유, 석유제품, LPG

**해외직접투자현황(2018년 9월 말 누계, 총투자기준)** 27건, 25,852천달러

## 국내경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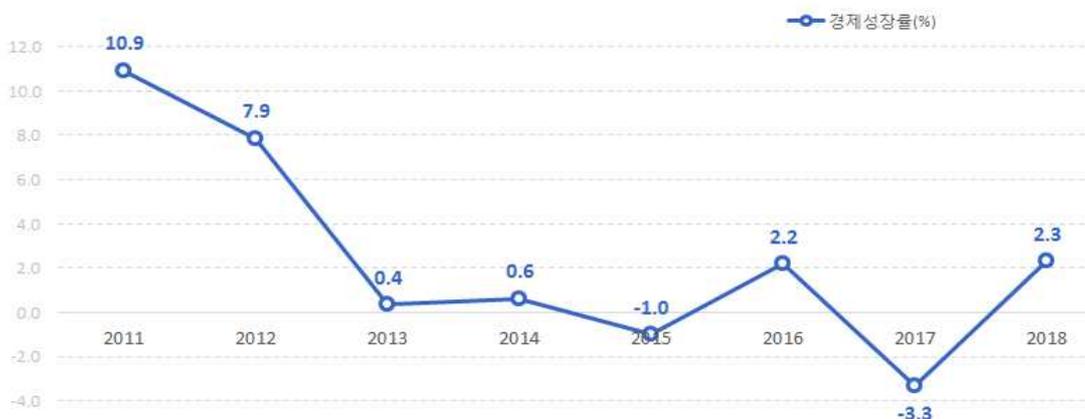
구분	2014	2015	2016	2017	2018 <sup>e</sup>
경제성장률	0.6	-1.0	2.2	-3.3	2.3
소비자물가상승률	3.1	3.7	3.5	1.5	0.8
재정수지/GDP	8.1	-13.5	-13.6	-8.7	0.6

자료: IMF, EU

### 원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2018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 추정

-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1년 10.9%, 2012년 7.9%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이후 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원유 생산·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음.
-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이 GDP의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석유 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.
- 2017년 경제성장률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\*로 인해 -3.3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6월 원유증산 합의\*\* 등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2.3%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.
- \* 2016년 11월 30일 OPEC 회원국은 2017년부터 일 120만 배럴을 감산하는 데 합의하였으며, 산유국 감산 이행 감시위원회의 일원인 쿠웨이트는 일일평균 원유생산량 13.1만 배럴 감산(일일 산유량 상한선은 270.7만 배럴)에 합의한 바 있음.
- \*\* 2018년 6월 산유국들이 일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하였으며, 쿠웨이트는 일 8.5만 배럴을 증산을 결정함.
- 한편, 2018년 10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(WEO)에서는 쿠웨이트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4.1%로 예측하였으나, 지난 12월 7일 OPEC PLUS(OPEC 회원국+비회원국)의 원유 감산 합의(2019년 상반기 중 2018년 대비 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)에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(브렌트유 기준)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유가 전망이 밝지 않아 4%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임.

### 쿠웨이트 경제성장률 추이



## 국내경제

### 안정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 지속

- 2016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연료 보조금 삭감, 식료품 가격 상승, 외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주택 임차료 상승 등으로 3.5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내수 침체 및 주택 부문 안정 등에 따라 1.5%로 하락하였음.
- 2018년에도 부가가치세(VAT) 도입이 미뤄짐에 따라 0.8%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9년에는 수입재 가격 상승 및 신용 대출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.0%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 전환

- 쿠웨이트는 원유수출 수입(收入)이 전체 세수의 약 90%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, 2010년대 들어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재정수지 흑자\*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2015년 재정수지가 적자(GDP 대비 -13.5%)로 전환하였음.

\* 2010~13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연평균 27.1%에 달함.

- 2017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(-13.6%) 대비 축소된 -8.7%를 기록하였음. 2018년에는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0.6%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9년에는 동 비중이 1.2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## 대외거래

### 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달러, %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 <sup>e</sup>
경 상 수 지	53,966	8,587	640	7,757	20,402
경상수지/GDP	33.2	7.5	0.6	6.5	11.5
상 품 수 지	77,407	27,993	20,054	25,648	41,535
상 품 수 출	104,791	55,335	46,617	55,175	74,141
상 품 수 입	27,385	27,343	26,562	29,527	32,606
외 환 보 유 액	32,114	28,270	31,027	33,599	36,328
총 외 채	37,195	41,826	47,353	59,742	70,174
총외채잔액/GDP	22.9	36.5	42.7	50.5	55.8
D.S.R.	1.7	4.5	3.7	4.0	4.9

자료: EIU, OECD

### 국제유가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

- 쿠웨이트는 원유 및 원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로, 2010~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30%대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\*를 시현하였으나,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50% 가량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7.5%로 급감하였음.

\* 2010년~14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연평균 38.8%에 달함.

-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0.6%까지 하락하였으나, 2017년에는 주요 산유국 감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소폭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6.5%로 증가하였으며, 2018년에는 3분기까지의 유가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 비중이 11.5%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## 외채상환능력

###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

- 대내, 대외, 국부펀드에서 균형 있게 자금을 조달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로본드 발행\* 등 대외 차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5.8%로 전망되나, D.S.R.은 4.9%(18년 추정치)로 안정적인 수준임.
- \* 2017년 3월, 80억 달러 규모의 정부채 발행(35억 달러 규모 5년물(이자율 2.8%) 및 45억 달러 규모 10년물(이자율 3.62%)
- 또한 풍부한 외환보유액(18년 추정치 363억 달러)과 쿠웨이트 투자청(KIA, Kuwait Investment Authority)이 운영하고 있는 국부펀드 규모(18. 8월 기준 5,920억 달러)를 감안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.
- 쿠웨이트는 2010~14년 고유가에 힘입은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를 축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Moody's에 따르면 2017년 말 쿠웨이트 투자청의 국부펀드 규모는 쿠웨이트 GDP 규모의 약 5배, 정부부채의 약 2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.

주요 외채지표 현황



외채 및 주요 자산 현황



## 구조적취약성

###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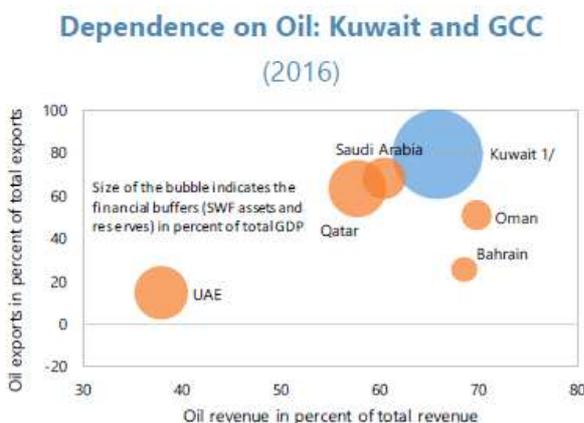
- 석유 부문이 GDP의 50%, 재정수입의 90%, 총수출의 80~90%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함.
- 또한, 석유화학산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,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수입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.

## 성장잠재력

###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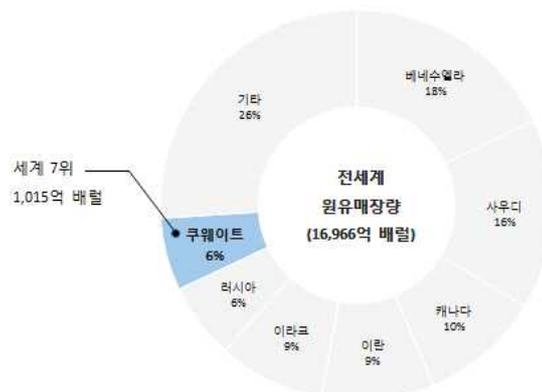
- 쿠웨이트는 한반도 면적의 1/12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7년 기준 1,01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(세계 7위)을 보유하고 있는 OPEC 회원국으로,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(2018.6월)에 의하면 2017년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302만 배럴 수준임.
- 아울러, 2017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1.7조 m<sup>3</sup>(세계 19위)로, 연간 174억 m<sup>3</sup> 이상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.

### 쿠웨이트와 GCC 국가들의 원유의존도



자료: IMF Staff Report, Dec 2017

### 전 세계 원유매장량 현황



자료 :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, June 2018

## 금융·무역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보유

-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, 북쪽으로는 이란, 이라크 등 중동의 대규모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걸프 지역의 금융·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.
- 1970년대 말까지 걸프 지역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, 1981년 이란-이라크 전쟁에 이어 1990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UAE(두바이), 카타르 등에 지위를 넘겨주었음.
- 국가개발계획 'New Kuwait 2035'를 통해 걸프 지역의 금융·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물류기지 건설, 쿠웨이트 공항 증축, 철도 및 도로 증설,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임.

## 쿠웨이트 및 주변국 지도



자료 : Central Intelligence Agency

## 정책성과

### 'New Kuwait 2035 Strategy'를 통한 장기 국가개발계획 추진

-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해왔으며, 2017년 1월에는 국가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'New Kuwait 2035'를 발표하였음.
- 제4차 경제개발계획(2010/11~2014/15)에서는 1,050억 달러 예산으로 도로·항만, 의료·교육 등 경제·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.
- 제5차 경제개발계획(2015/16~2019/20)은 1,160억 달러 규모로 경제 번영 및 경제 다각화, 투명한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, 2017년 1월 발표된 'New Kuwait 2035 Strategy'로 통합되었음.
- 'New Kuwait 2035 Strategy'는 2035년까지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·상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전략과 7개 축(Pillar)를 설정하고, 인적자원 개발, 인프라 시설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임.
- 이와 관련하여 총 16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, 특히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54개 프로젝트를 할당하였음. 또한, 쿠웨이트 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, 국철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음.

### New Kuwait 2035 Strategy

#### 5대 전략

-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
- Effective Government
- Prosperous Economy
- Nurturing Nation
- Globally Relevant Player

#### 7개 축

- Global Positioning
- Developed Infrastructure
- High Quality Health Care
- Creative Human Capital
- Effective Civil Service
- Sustainable Diversified Economy
-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

- 한편, 경제 다각화 계획과 더불어 석유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지속되고 있으며, 정제능력 확대를 목표로 Al Zour 지역 정제소 건설(160억 달러) 및 Clean Fuels 프로젝트(120억 달러) 등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.

##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진행

- 'New Kuwait 2035'는 북부 걸프 지역의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, 장기간 지연되었던 신도시(실크 시티 및 5개 섬)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- 정부는 쿠웨이트만의 북쪽 끝에 위치한 Subiya 지역(실크 시티)과 근처 5개 섬(Bubiyan, Warba, Failaka, Maskan, Awhah)에 레저, 관광, 무역, 헬스케어 및 주거공간을 어우르는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와 항구(Mubarak Al-kabeer Port),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와 연결되는 교량(Jaber causeway) 등을 건설하여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 및 상업 중심지로 부상시킬 계획임.
- Bubiyan 섬에 건설될 Mybarak Al-kabeer 항구는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부 걸프 지역의 육로와 수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개발될 예정임.
-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1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고,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.
- 쿠웨이트는 실크 시티 및 5개 섬 개발 프로젝트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(One belt one road)와 연계시켜 발전시킬 계획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지난 7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에는 동 프로젝트 개발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.

## 자국민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'쿠웨이트인 고용 개선정책'(Kuwaitization) 실시

-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의 비중은 31%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도, 이집트 등 출신의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(전체 인구의 69%, 노동 인구의 82%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자국민은 주로 공공 부문(76.8%)에, 외국인들은 주로 민간 부문(95%)에 종사하고 있음.
- 자국민들은 높은 임금 수준과 복지,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공공 부문 취업을 선호하여 대부분이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며,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부문의 취업을 기피함.
- 쿠웨이트의 전체 실업률은 2.07%로 낮은 편이나 최근 공공 부문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 청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며\* 자국민 실업률(4.7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.  
\* 매년 14,000명의 자국민 청년 인구가 취업시장에 나오고 있음.
- 당국은 쿠웨이트인의 실업 문제가 부각되자 외국인 취업요건 강화, 공공 부문 외국인 근로자 해고 및 자국민 채용 확대, 민간 부문 자국민 쿼터제 등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구직자들의 민간 부문 기피로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.

## 정치동향

### 고령의 국왕 및 왕세자로 인해 권력 투쟁에 따른 정치 불안 요소 잠재

- 현재 Sabah 국왕이 2006년부터 집권 중이나 89세의 고령으로 지속적인 통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,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Nawaf 왕세자(Crown Prince)가 추후 왕위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역시 81세의 고령으로 차기 왕세자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국왕의 두 조카인 Nasser 왕자(78세, 총리직 역임)와 Ahmad 왕자(56세, 부총리직 역임)가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파벌을 형성하여 경쟁 중이며, 국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Nasser왕자의 왕위 계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.

### 행정부·입법부 간 마찰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 존재

- 정부는 2015년부터 저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료 보조금 철폐, 임금 삭감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, 이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심화되며 양측간 마찰이 지속되어 왔음.
-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국회가 존재하는 나라이나, 의회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임.
- Sabah 국왕은 정국 불안과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 국회를 해산하였으나, 이후 실시된 11월 총선에서 반 여권 성향 의원들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(50석 중 24석)을 차지하여 정부 추진 프로젝트 및 재정지출 합리화, 세수 증대 조치 등에 반기를 들.
- 2017년 10월에는 내각 담당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의 비판에 반발한 내각이 총사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12월 새 내각이 구성된 바 있음.
- 이러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18년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(VAT) 도입이 2021년 중반으로 미뤄지고, 2018/19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이 12.4% 가량 인상되는 등 정부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긴장 심화에 따른 추가적인 국회 해산 가능성도 존재함.

## 사회동향

### 시아파와 수니파 간 갈등은 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편

- 쿠웨이트는 이슬람 인구가 전체의 약 7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%가 수니파, 30%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에 비해 종파 갈등이 크지 않은 편임.
- 2015년 6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시아파 모스크 테러를 자행한 후 두 종파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으나, 이후 이라크 내 IS 세력이 격파됨에 따라 갈등은 다시 완화되었음.

### 집회·시위 및 언론의 자유는 제한적

- 쿠웨이트 정부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 집회·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.
- 아울러 2015년 1월 정부 비판적인 일간지 al-Watan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바 있으며, 2016년 1월 전자범죄법(Cyber-crimes law)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.
- 전자범죄법의 경우 내용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온라인상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왕 및 왕가, 정부 관련 인사,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체포 및 기소의 대상임.
-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언론자유도는 180개 국가 중 105위에 불과하며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5년 쿠웨이트의 언론 및 출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.

### 주택난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불만 야기

- 쿠웨이트인 기혼 남성은 헌법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, 주택 공급(연 3,000가구 가량)이 수요(약 11만 명)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7~18년을 기다려야 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음.
-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주택 신청 후 3년 안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.

## 국제관계

###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 대한 중재 지속

-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, 바레인,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(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) 발생을 계기로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.
-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22일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\*을 전달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타르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.

\* 이란과의 외교관계 격하 및 Al-Jazeera 방송국 폐쇄 등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

- 쿠웨이트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Sabah al-Ahmad 국왕이 사태 초기부터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여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.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카타르가 OPEC 탈퇴를 선언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.

### 이란과 여전히 긴장관계 유지, 이라크와는 관계 개선 기대

- 쿠웨이트와 이란은 2016년 이란 시위대의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공격 사건\*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며, 최근 이란에서 쿠웨이트 내 시아파를 자극하기 위해 스파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이다.

\*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지도자 처형에 반대하여 일으킨 사건으로, 이 사건에 대해 쿠웨이트 정부는 사우디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.

- 한편, 쿠웨이트 정부는 국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이라크 내 IS 잔당 퇴치에 협력하고 있으며, 지난 4월에는 이라크가 3년 간 중단했던 1990-91년 침공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### 최근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

- 쿠웨이트는 주요 원유 수출상대국인 한국,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원유 수출 및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중국은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, 쿠웨이트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내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음.
- 또한, 쿠웨이트는 'New Kuwait 2035'에 포함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향후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·무역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.

## 외채상환태도

###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

- OECD에 의하면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(공적수출신용기관)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여신 79.4억 달러 중 일부가 연체 중이나 0.1%(8.6백만 달러)로 소액에 불과하며,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.

## 국제시장평가

###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2등급(2018.01)	2등급(2017.01)
Moody's	Aa2 (2017.05)	Aa2 (2016.05)
Fitch	AA (2018.05)	AA (2017.10)

### OECD 2등급, 국제신용평가사 AA 등급 유지

- OECD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쿠웨이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가장 최근의 2018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2등급을 부여하였음.
- Fitch는 AA 등급, Moody's는 Aa2 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3사 모두 쿠웨이트에 대해 투자 적격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등급인 AA 수준을 부여하고 있음.

- 쿠웨이트는 세계 7위 규모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고유가에 힘입어 2011년 10.9%, 2012년 7.9%에 이르는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이후 세계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음.
- 2017년 경제성장률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로 마이너스(-3.3%)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증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, 정부 투자 확대 등에 따라 2.3%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.
- 재정수입과 수출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,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재정수지가 적자(GDP 대비 -13.5%)로 돌아서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2016년 0.6%까지 하락하였음.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.6%로 흑자 전환하고,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11.5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국왕과 왕세자의 고령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왕실 내부의 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,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-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 증가에 따라 2018년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55.8%로 추정되나, D.S.R.이 4.9%('18년 추정치)로 양호하고, 풍부한 외환보유액('18년 말 추정 363억 달러)과 국부펀드 규모('18. 8월 기준 5,920억 달러)를 감안시 외채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.